청송의 樓亭 漢詩 연구

- 讚慶樓・秀孤亭・玉流亭 등을 중심으로

김남기*

1. 서론
2. 讚慶樓, 聖德의 칭송과 仙境의 흥취
3. 秀孤亭, 先賢의 추모와 思鄕의 토로
4. 玉流亭・東溪亭・壓脚臺・望美亭, 閑趣의 향유와 戀君의 표현
5. 결론

<국문초록>

靑松은 산천이 수려하고 이름난 누정이 산재하여 예로부터 문인들이 이곳을 찾아 시문으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한 文鄕이다. 본 논문은 청송의 수많은 누정 중에서 빼어난 시편이 다수 남아 있는 讚慶樓・秀孤亭・玉流亭・東溪亭・壓脚臺・望美亭 등을 대상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각 장에서 누정의 연혁 등을 간략히 살펴본 뒤 해당 누정 명편 한시의 主旨와 시상 전개 양상 등을 분석하였다.

찬경루는 풍경이 아름다운 청송읍 月幕里 南川 가에 있는 누각이다. 청송부사 河澹이 1428년에 昭憲王后의 聖德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하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지은 한시는 대부분 소헌왕후의 성덕을 칭송하거나 仙境의 흥취를 피력하였다. 김종직・조형도・김홍욱・이의현 등의 한시는 소헌왕후의 성덕을 칭송하였고, 서거정・이해・신익상 등의 작품은 선경에 대한

* 안동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www.kci.go.kr

흥취를 주로 표현하였다.

수고정은 청송 객관 북쪽에 있던 정자로, 수고정 편액은 이황이 쓴 것이다. 그래서 양극선・홍한주 등은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면서 이황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표현하였고, 신익상・성근묵 등은 타향에 머무는 처지에서 오는 思鄕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옥류정・동계정・압각대・망미정을 읊은 이황・조형도・황준량・허훈의 한시는 청송의 아름다운 경관을 적실하게 표현하는 한편 각각 고향 진보에 대한 그리움, 思親과 戀君의 심정, 넘치는 詩興, 忠君과 善政의 칭송 등을 주지로 하였다.

본 논문에서 고찰한, 청송의 대표적인 누정을 읊은 15수 남짓의 시편은 청송의 아름다운 경관은 물론이고 청송의 인물과 문화, 시인의 심회를 적실하게 표현하여 청송의 성가를 드높였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본고에서 살핀 누정을 포함하여 다른 누정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핵심어: 청송, 누정, 한시, 讚慶樓, 秀孤亭, 玉流亭, 東溪亭, 壓脚臺, 望美亭

1. 서론

靑松은 백성들이 순박하고 풍속이 후하며 山勢가 起伏이 있고 냇물이 서리고 돌아 빼어난 경관이 있는데다가 유명한 누정이 산재하여 예로부터 많은 문인들이 이곳을 찾아 시문으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한 文鄕이다. 청송에는 鎭山인 放光山을 포함하여 周房山[주왕산]・普賢山・普光山・南角山 등의 名山과 南川[龍纏川]・安德西川・神漢川 등의 大川이 있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거니와 동시에 讚慶樓・秀孤亭・新民軒・雙光軒・玉流亭・東溪亭・鴨脚臺・望美亭・眞松亭 등 유명한 누정이 자리 잡아 자연과 인문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다.

洪汝方(1381~1438)은 일찍이 <讚慶樓記>에서 “眞寶에 이르러 방향을 남쪽으로 돌려 수십 리를 가는 동안 점점 山勢가 기복이 있어서 용이 날아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범이 웅크린 같기도 하였으며, 냇물이 서리고 돌아서 마치 가려 하다가 다시 오는 것 같았다.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울울창창

www.kci.go.kr

하고 안개와 노을이 어두침침하게 잠겨 있어서 맑고 그윽한 洞壑이 의연히 仙境과 같은 곳이 바로 청송이다."[1]라고 하여 청송의 수려한 경관을 칭송하였다.

그리고 申翼相(1634~1697)은 1654년 9월에 서울을 떠나 충청도를 경유하여 경상도의 榮川[영주]·安東·靑松 등지를 유람하고 10월에 쓴 <南遊錄>에서 청송의 경관과 누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山勢가 더욱 펼쳐져서 바퀴살이 모이듯 둥글게 휘돌아 한 골짜기를 이루었는데, 태수가 쉬는 곳도 있고 길손이 노니는 곳도 있고 吏民이 안돈하는 곳도 있으니, 이것이 靑鳧[청송]의 고을 됨됨이다. 푸른 원숭이와 괴이한 새가 흰 구름과 푸른 벼랑 사이에서 슬피 울고 어지럽게 울어대니, 이것이 청송의 경관이다. 남쪽의 堂은 生白堂이라 하고 서쪽의 누대는 讚慶樓라 하고 북쪽의 정자는 秀孤亭이라 하는데, 푸른 절벽 위에 줄지어 서있으니 이것이 청송의 樓觀이다. 한가로운 구름과 못의 그림자가 여덟 개의 창문에 교차하여 비치니, 이것이 누대 위에서 본 경관이다. 풀과 나무가 울창하고 안개와 구름이 무성하며 층층이 중첩된 산봉우리가 원근에 둥글게 솟은 것과 같은 곳으로는 武陵溪의 그윽한 雅致가 있어서 서울[京洛]을 바라볼 수 있다. 인간세상의 별천지일 뿐만 아니니 이것이 청송이 海東에서 이름난 까닭이다. 아름답도다! 땅이 아름다워 왕비[昭憲王后]께서 여기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찬경루를 지어 성대하게 하였고, 산이 수려하여 흰 학이 와서 깃들었기 때문에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무성하고, 물이 맑아서 교룡이 숨어 있기 때문에 가물 때에 용에게 기도하니 이것이 청송의 大觀이다.[2]

신익상은 위의 글에서 청송 산천의 경개와 관리·여행객·백성들의 휴식처, 生白堂·讚慶樓·秀孤亭 등 樓觀의 경관과 연혁 등에 대하여 약술하

---

1) 洪汝方, <讚慶樓記>(『新增東國輿地勝覽』 제24권 靑松都護府 樓亭). "至眞寶, 轉南行數十里, 漸見山勢起伏, 如龍騰而虎踞, 川流盤廻, 若欲去而復來, 松柏鬱乎蒼蒼, 煙霞晻其靄靄, 淸幽一洞, 依然仙境者, 乃靑松也."

2) 申翼相, <南遊錄>(『醒齋遺稿』 책9, 문집총간 146책). "山勢益放, 輻輳回環, 爲一洞中, 有太守偃息之所, 有過客遊宴之所, 有吏民安頓之所, 此乃靑鳧爲邑也. 靑猿怪鳥, 悲吟亂嘯於白雲靑崖之間, 此則靑鳧之景也. 南有堂曰生白, 西有樓曰讚慶, 北有亭曰秀孤, 羅列於翠壁之上, 此則靑鳧之觀也. 閑雲潭影, 交映於八窓, 此則樓上之景也. 若其草樹蔥籠, 煙雲紛郁, 層巒疊巘, 環聳遠近, 有武陵溪之幽致而望京洛, 不啻若別人世, 則此乃靑鳧之所以名於海東者也. 休矣哉! 地之美, 王妃出焉, 故營樓侈之, 山之秀, 白鶴來棲, 故松柏茂焉, 水之淸, 蛟龍潛焉, 故旱則禱之, 此則靑鳧之大觀也."

www.kci.go.kr

였는데, 그는 이 글에서 청송이 수려한 산천과 빼어난 누정을 갖고 있어서 백성들의 삶이 안온하고 문인들이 많이 찾는 곳임을 피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옛 문인들이 청송의 명소를 다룬 수많은 시문 중에서 누정을 대상으로 하여 지은 시를 중심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청송에는 수많은 누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문인들이 찾아 빼어난 시편을 남긴 찬경루・수고정・옥류정・동계정・압각대・망미정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각 장에서 해당 누정의 연혁과 제영 한시를 개괄한 뒤 이어서 한시 명편을 분석하여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2. 讚慶樓, 聖德의 칭송과 仙境의 흥취

찬경루는 청송읍 月幕里 南川 가에 있는 누각이다. 본 누각은 청송부사 河澹이 1428년에 왕명을 받들어 世宗妃 昭憲王后(1395~1446)의 성덕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한 뒤 홍여방에게 기문을 부탁하였고, 홍여방이 기문을 지으며 찬경루라 명명하였다. 그리고 安平大君(1418~1453)이 '松栢岡陵'이라는 편액을 써서 내려 보내 걸었으나 후에 화재로 소실되었고, 청송부사 韓光近(1735~?)의 아들 韓喆裕(1769~?)가 1792년에 안평대군의 글씨를 臨模한 편액을 걸었다. 현재 이 편액은 한국국학진흥원에 보관되어 있고, 찬경루에는 모각본이 걸려 있다.

'松栢岡陵'은 신하가 임금의 多福과 자손의 번창을 기원한 『詩經 小雅 天保』의 "산과 같고 언덕과 같고 작은 언덕과 같고 큰 언덕과 같고 냇물이 바야흐로 이르는 것 같아서 복이 더해지지 않음이 없으리라. …(중략)…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무성하듯이 자손들이 이어지지 않음이 없으리라.[如山如阜, 如岡如陵, 如川之方至, 未莫不增. …(中略)… 如松柏之茂, 無不爾或承.]"에서 따온 것으로 소헌왕후의 성덕을 기리고 자손들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편액이다.[3] 찬경루는 이후 1688년에 청송부사 李東溟

3) 이것은 홍여방을 비롯한 여러 문인들의 시문에서 증명되는데, 홍여방은 <讚慶樓記>에서 "지금까지도 왕후[소헌왕후]의 덕[坤德]과 어머니로서의 儀表, 金枝玉葉인 후손들은 우리 조선 億萬世가 되도록 끝없는 복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이 누각에 올라 그 터를 바라보니 우

(1624~1692)이 중창하고 1792년에 청송부사 韓光近이 중수하였으며, 1910년에 관청 건물로 편입되었다. 그리고 1927년과 1968년에 중수하였으며, 2001년부터 유교문화권 정비 사업이 진행되어 찬경루와 雲鳳舘의 정비와 복원이 이루어졌다.

찬경루는 소헌왕후의 성덕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하였기 때문에 이곳을 찾은 문인들은 시문에서 대부분 소헌왕후의 성덕을 칭송하는 한편 찬경루 주변의 빼어난 경관을 仙境에 비유하여 그 흥취를 토로하였다. 찬경루와 관련된 시문으로는 홍여방・宋時烈・沈相縉・曺圭哲의 記文, 한광근・李中轍의 上樑文을 포함하여 徐居正・金宗直・李深源・洪聖民・黃孝獻・柳仲龍・柳綏・辛引孫・金宗裕・梁克選・李瀣・李好閔・金弘旭・申翼相・李宜顯・李種徽・洪翰周・趙亨道・崔有淵・文敬仝 등이 지은 시편이 전한다.

수많은 작품 중에서 먼저 소헌왕후의 성덕을 칭송한 시편을 살펴보고 이어서 선경의 흥취를 표현한 시작을 고찰하고자 한다. 다음은 金宗直(1431~1492)이 서거정 등 앞사람의 시에 차운한 <次靑松讚慶樓>이다.

나무 끝 위에 화려한 누각이 석양 가에 섰는데
구름 속 누각에서 홍이 높아 술잔을 잡았네.
냇물이 휘돌아 천 길의 돌길이 잠겼고
산이 에워싸 한 조각의 하늘을 훔쳤네.
沙麓의 상서[4]는 진실로 기록할 만하고
武陵桃源 경관은 정말로 사랑할 만하네.
머리 들어 煙霞 속의 길손 향해 웃나니

러러 찬미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찬경루라 명명한다.[迄今坤德母儀, 玉葉金枝, 衍我朝鮮億萬世無疆之福. 登斯樓, 望其基, 不得不爲之仰讚也. 故名之曰讚慶.]"라고 하였다. 권진호는 「讚慶樓」(제32회 누정순회강좌, 2009년 10월)에서 『논어』의 "날씨가 추워진 뒤에 송백이 뒤늦게 시듦을 안다.[歲寒然後, 知松柏之後凋.]"라는 구절이 안평대군 편액의 출처이고, 소헌왕후와 인선왕후가 사신을 보내어 청송심씨 시조 산 주위에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게 한 데에서 유래하였다고 보았으나 잘못이다.

4) 沙麓은 춘추 시대 晉나라 山名으로 魯나라 僖公 14년에 이 산이 무너지자 진나라 史官이 점을 쳐보고는 "545년 뒤에 聖女가 이 땅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과연 뒤에 漢元帝의 왕후가 여기에서 탄생하였다. 후대에 왕후의 탄생지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여기서는 靑松이 본관인 沈溫의 딸로 世宗妃가 된 昭憲王后를 가리킨다.

巢父와 許由[5]도 본래 신선이 아니었네.[6]
樹杪華楹返照邊　　雲間高興把杯前
川回蘸却千尋磴　　山擁偸他一片天
沙麓禎符眞可紀　　桃源物色絶堪憐
擡頭笑向棲霞客　　巢許從來未必仙

김종직은 전반부에서 석양 무렵 찬경루에 올라 술을 마시면서 찬경루 주변을 휘돌아가는 냇물과 에워싼 산줄기 사이에 자리한 하늘의 모습을 섬세한 필치로 묘사한 뒤 頸聯에서는 이곳은 소헌왕후가 태어나신 곳이자 무릉도원처럼 풍경이 매우 빼어나다고 칭송하였다. 미련에서는 仙境처럼 아름다운 곳이라 여기에 들른 사람도 신선이 된 듯한 생각이 들게 한다고 하였다. 결국 이 시는 찬경루에서 바라본 풍경의 아름다움과 소헌왕후의 聖德을 되새기는 마음을 표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趙亨道(1567~1637)가 1636년에 지은 <靑鳧八詠> 중 제1수인 <讚慶樓>이다. <靑鳧八詠>은 <讚慶樓>, <城隍堂>, <磻龍巖>, <松生縣>, <方臺>, <周房>, <放光山>, <落淵> 등 청송의 명승 여덟 곳을 읊은 시편이다.[7] 조형도는 이 작품 이외에도 <宿普光寺 望沈墓>, <次讚慶樓板上邊字韻>, <次讚慶樓程字韻>, <讚慶樓餞朴侯而章二首> 등의 시편을 짓기도 하였다.

푸른 솔과 측백나무가 佳城[8]에 울창하고
瑞氣가 무성하여 도성이 밝아졌네.
聖子神孫이 오래도록 계승하여 祖述하였고
金枝玉葉 중에서 몇 분이나 뛰어났던가?
왕실을 교화하여 基業을 다졌음을 알겠거니
궁중에 머물러서 태평이 비롯된 것 아니라네.

5) 모두 堯 임금 때의 은사들로 요임금이 그들에게 천하를 讓與하였으나 받지 않고 다 산중으로 들어가 은거하였다.
6) 金宗直, <次靑松讚慶樓>(『佔畢齋集』 詩集 3권, 문집총간 12책). 『新增東國輿地勝覽』과 『輿地圖書』에는 返照가 落照로, 雲間이 登臨으로, 紀가 記로, 絶이 政으로 되어 있다.
7) 金宗裕도 <靑松八景>에서 讚慶樓·城堭赤壁·磻龍岩·松生古縣·方臺·周王山·放光山·落淵 등을 읊었다. 『靑松郡誌』(청송군 1990년) 684면 참조.
8) 佳城은 묘지로, 여기서는 沈洪孚의 무덤을 말한다.

머리 센 고을 백성 나이가 일흔인데
욕되게도 여기 올라 세 번 華名을 기리네.[9]
蒼松翠柏鬱佳城　　瑞氣蔥籠日下明
聖子神孫長繼述　　金枝玉葉幾豪英
是知化內由基業　　不獨居中自太平
白首鄕民年七十　　忝登三復讚華名

수련에서는 푸른 솔과 측백나무가 무성한 沈洪孚 무덤의 陰德으로 소헌왕후가 태어났고, 훗날 왕비가 되어서 도성이 밝아진 것을 기렸고, 함련에서는 소헌왕후의 자손들 중에서 왕위에 올라 왕업을 다진 분들과 뛰어난 덕행을 지닌 후손들을 칭송하였다. 경련에서는 왕업이 튼튼해진 것은 단순히 소헌왕후가 왕비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현숙한 덕행으로 왕실을 잘 교화한 데에서 비롯되었음을 말하였다. 미련에서는 일흔 살이 된 시인이 찬경루에 올라 소헌왕후의 덕행과 찬경루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찬미하는 심정을 표현하였다.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조상의 음덕과 소헌왕후의 덕행으로 말미암아 왕실의 후손이 번창하고 왕업이 다져진 사실을 칭송한 시편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金弘旭(1602~1654)이 1641년에 敬差官으로 영남에 왔을 때 찬경루에 들러 傍祖 金永濡의 시에 차운한 <讚慶樓 謹次旁祖恭平公永濡板上韻>이다.

백 척의 높은 누각이 구름에 기댔는데
아홉 구비 여울 소리가 난간 앞을 둘러가네.
한 줄기 오솔길이 멀리 별천지로 통하고
두 개의 다리가 비스듬히 냇물 위에 걸려있네.
龔黃[10]의 남긴 자취는 지금도 사람들이 말하고
任姒[11]의 좋은 말씀은 후대에도 어여삐 여기네.
처마 너머 기이한 바위[12]에는 좋은 자취 많은데

9) 趙亨道, <靑皐八詠> 중 讚慶樓(『東溪集』 권2, 문집총간 續集 15책).
10) 龔黃은 漢나라의 循吏인 龔遂와 黃霸를 말한다. 여기서는 沈德符와 沈溫 등을 가리킨다.
11) 任姒는 周나라 文王과 武王의 어머니인 太任과 太姒를 말한다. 여기서는 沈溫의 딸로 세종비가 된 소헌왕후와 沈鋼의 딸로 明宗妃가 된 仁順王后(1532~1575)를 가리킨다.

달 밝을 때 학을 타고 여러 신선 내려오네.[13]

高樓百尺倚雲邊　　九曲灘聲繞檻前
一徑遙通壺裏界　　雙橋橫跨鏡中天
龔黃遺躅今人說　　任姒徽音後代憐
簷外奇巖多勝迹　　月明笙鶴下群仙

전반부에서는 구름이 낀 높은 찬경루에 오르니 휘돌아가는 냇물 소리가 들려오고 냇물 위에 두 개의 다리가 비스듬히 걸려 있어 이곳이 별천지와 같음을 표현하였다. 함련에서는 조선 건국에 공을 세워 靑城伯에 봉해진 沈德符와 소헌왕후를 낳고 영의정을 역임한 沈溫 등 沈氏門中의 인물, 賢淑한 덕을 지니고 世宗妃가 된 소헌왕후의 공적과 언행이 후대에도 칭송받고 있음을 말하였다. 미련에서는 청송에는 賢妃巖 등 빼어난 자취가 많이 남아 있어 달 밝은 밤이면 신선이 학을 타고 내려오는 등 경관이 매우 수려함을 표현하였다.

다음은 李宜顯(1669~1745)이 1712년 경상감사에서 체직된 뒤 1711년 경상도 列邑을 순시하던 때를 회상하여 지은 작품이다. 이의현은 1711년 6월 경상감사로 부임하였으나 1712년 3월에 우의정 趙相愚가 이의현이 경상감사로 부임할 때 자신에게 인사 하지 않았던 일을 들어 논척을 하여 경상감사에서 체직되었다. 이의현은 1711년에 慶州・蔚山・東萊・密陽・大丘・安東・靑松・尙州・晋州・金海・鎭海・固城 등지를 순행하였고, 이듬해 체직된 뒤 해당 지역의 인물과 사적, 풍광 등을 시로 읊었는데, 일종의 風謠 내지 樂府詩라 할 수 있다. 제목은 "나는 남으로 온 지 한 해가 지나 時任 재상[조상우]의 배척 때문에 사직소를 연달아 올려 면직하여 주기를 청하여서 열읍을 순행할 수 없었다. 이제 장차 체직되어 돌아가면서 부질없이 칠언절구를 지어 경상도의 산천과 풍속을 차례로 적어서 유람을 대신하고자 한다(余來南經年 而以時宰之斥 連章乞免不得 巡行列邑 今將遞歸 漫

12) 찬경루의 서쪽 냇물 맞은편에 있는 賢妃巖을 가리킨다. 고려 文林郞 沈洪孚[소헌왕후의 5대조]를 장사지내기 전날 밤에 우레가 산에 내리쳐서 험한 산이 玉筍처럼 깎아지른 듯이 서 있었는데, 地官이 "왕비가 탄생할 조짐"이라고 하여 賢妃巖이라 이름하였다.

13) 金弘旭, <讚慶樓謹次旁祖恭平公永濡板上韻>(『鶴洲集』 권2, 문집총간 102책). 김영유의 原韻詩는 "巖屛壁立白沙邊, 門巷依然古寺前. 一苑落花紅滿地, 千重列岫翠浮天. 卷舒雲影閒中笑, 嗚咽灘聲靜裏憐. 何事勞求方外界, 小樓端坐可邀仙."이다.

賦七絶 歷叙一路山川風俗以替遊覽)"라고 되어 있어 비교적 긴 편인데, 모두 92수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 제40수가 청송의 주왕산과 찬경루를 읊은 시편이다.

周房山의 산세가 매우 깊고 그윽한데
날이 개자 저 멀리 찬경루에 이어졌네.
청송은 상서가 沙麓과 저절로 상응하니
三韓의 백대 후에도 아름다움이 넉넉하리.[14]
周房山勢特深幽　　霽色遙連讚慶樓
自是靑鳧祥應麓　　三韓百代衍嘉休

기구와 승구에서는 매우 깊고 그윽한 주왕산의 산세가 저 멀리 찬경루로 이어짐을 말하였고, 전구와 결구에서는 한나라 元帝의 왕후가 沙麓에서 태어난 것처럼 소헌왕후가 이곳에서 탄생하여 백대가 지난 뒤에도 아름다운 이름이 무궁히 전해질 것임을 표현하였다.

이상에서 소헌왕후의 성덕을 기리고 자손들이 번창한 사실을 표현한 시편들을 살펴보았다. 다음에서는 찬경루와 그 주변의 아름다움을 선경에 비의하여 표현하고 거기에서 느끼는 흥취를 토로한 작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徐居正(1420~1488)이 찬경루에 題詠한 시편이다. 이 작품은『四佳集』에는 실려 있지 않고,『新增東國輿地勝覽』,『輿地圖書』,『靑松府邑誌』 등에 실려 있다.

온종일 한가히 시 읊으며 기둥에 기대니
諸賢의 名句는 모두 盧照隣에 앞서네.[15]

14) 李宜顯, <余來南經年 而以時宰之斥 連章乞免 不得巡行列邑 今將遞歸 漫賦七絶 歷叙一路山川風俗以替遊覽> 92 중 제40수(『陶谷集』 권1, 문집총간 180책). 시 말미에 "청송은 청부라 부르는데, 소헌왕후와 인순왕후의 본향이다. 주방산과 찬경루는 모두 청송부의 명승이다(靑松號靑鳧 卽昭憲仁順王后本鄕 周房山讚慶樓 皆府之名勝)"가 부기되어 있다.

15) 王勃・楊炯・盧照隣・駱賓王을 初唐四傑이라 일컬었는데, 양형이 일찍이 말하기를 "나는 노조린의 앞에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왕발의 뒤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하자 評者들이 모두 그러하다고 하였다.『唐書』<王勃傳> 참조. 여기서는 찬경루에 걸린 諸賢의 시편이 모두 노조린보다 뛰어나다는 의미로 쓰였다.

두 산이 疑無地[16]로 좁게 내달리고
오솔길이 小有天[17]으로 몰래 통하네.
푸른 오리 찾으려 해도 이제 볼 수 없지만
한가로이 흰 물새를 보니 참으로 사랑스럽네.
이 사이에 반드시 蓬萊山이 있으리니
丹丘[18]가 아니어도 그대로 신선이 될 만하네.[19]

盡日閒吟倚柱邊　　諸賢傑句摠盧前
兩山夾走疑無地　　一徑潛通小有天
欲訪青鳧今不見　　閑看白鳥政堪憐
此間亦必蓬壺在　　不用丹丘仍羽仙

수련에서는 찬경루에 걸린 시편들을 한가로이 읊조리는데, 이들 시가 모두 初唐四傑 중의 하나인 盧照隣의 작품보다 뛰어나다고 칭송한 뒤 함련에서는 찬경루 주변의 산과 오솔길이 선경과 흡사하다고 하였다. 경련에서는 青鳧[청송의 옛 이름]를 방문한 뒤 이곳의 지명을 연상하여 푸른 오리를 찾으려 해도 이제 볼 수 없어 아쉬움이 들지만 그래도 한가로이 물에서 노니는 흰 물새가 보기에 매우 좋다고 하였다. 青鳧는 청송이라는 지명과 푸른 오리라는 두 가지 의미로 쓴 중의적인 수법이다. 미련에서는 山紫水明한 청송에는 반드시 삼신산 중의 하나인 蓬萊山이 있을 것이니 丹丘가 아니더라도 곧바로 신선이 될 수 있을 듯하다고 하여 이곳이 바로 선경이라고 천명하였다.

다음은 李瀣(1496~1550)가 1542년에 지은 <次青松讚慶樓韻>이다. 이해는 이때 賑恤御史로 경상도에 나와 善山・比安・臨河・青松・淸河・義城・軍威・豐基・安東・星州・仁同 등지를 다니며 백성들을 진휼하였다.

名區의 승경은 모두 끝이 없는데
술을 들고 등림하니 눈앞에 들어오네.

16) 세상에 없을 듯한 땅이라는 뜻으로 선경을 말한다.
17) 道家에서 전하는 洞府 이름으로 하남성 濟源縣 서쪽 王屋山에 있다. 소유천은 둘레가 만 리인데, 36 동부 중의 하나이다. 후대에 소유천으로 명승지를 비유한다.
18) 丹邱로도 쓰는데, 전설상에 신선들이 사는 곳을 가리킨다.
19) 『新增東國輿地勝覽』 제24권 青松都護府 樓亭 讚慶樓.

측백 잎이 천고의 땅에 시원하게 체질하고
배꽃이 석양 하늘에 눈처럼 날리네.
비단을 두른 듯 냇물이 비껴 흘러 사랑스럽고
소라처럼 솟은 산은 멀리서도 아름답네.
밤이 깊어 밝은 달이 기울기를 기다리면
羽衣 입은 玉京의 신선이 응당 있으리라.[20]

名區勝景儘無邊　　把酒登臨入眼前
柏葉籟涼千古地　　梨花飄雪夕陽天
帶羅匹練橫堪愛　　螺髻煙鬟遠可憐
更待夜深明月下　　羽衣應有玉京仙

청송은 빼어난 경관이 끝없이 펼쳐져 한 눈에 담기 어려운데 찬경루에 오르니 청송의 절경이 한 눈에 모두 들어온다. 찬경루 주변의 측백나무 잎이 무성하게 그늘을 드리운 채 체질하듯 바람결에 흔들리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늦봄이라 흰 배꽃이 석양 하늘에 눈처럼 사방으로 흩어진다. 그리고 비단을 펼친 듯 잔잔히 흘러가는 푸른 냇물과 소라처럼 솟은 아름다운 산이 시야로 들어온다. 푸른 측백나무 잎, 흰 배꽃, 붉은 노을, 푸른 냇물, 우뚝한 산, 시원한 바람 등 공감각적 이미지를 중복하여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였고, 동시에 정적인 이미지와 동적인 이미지를 결부시켜 빼어나게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미련에서는 이처럼 찬경루의 풍광이 아름답기에 달이 떠올라 밤이 깊어지면 신선들이 이곳을 찾아올 것이라 하여 선경의 아름다움과 그 흥취를 유감없이 표현하고 있다.

다음은 申翼相(1634~1697)이 1654년에 찬경루에 올라 지은 작품이다. 신익상은 1654년 청송에 머물다가 잠시 서울에 갔다가 다시 경상도로 왔는데, 내려오는 도중에 견문한 바를 「南遊錄」에 적었다. 신익상은 이 작품 이외에도 <靑皐雜詠三首>, <遊周房山四首>, <憶靑皐> 등의 시를 지어 청송의 아름다움과 청송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검푸른 周園이 고운 누각 가에 있어
푸른빛이 주렴 앞에 방울 져도 괜찮네.

20) 李瀣, <次靑松讚慶樓韻>(『溫溪逸稿』 권1, 문집총간 27책).

www.kci.go.kr

滕王의 누각[21]처럼 땅이 없는 허공에 있고
蘇軾의 黃樓[22]처럼 멀리 하늘로 솟았네.
물에서 노는 물새는 보기에 사랑스럽고
처마 근처 밝은 달은 정말로 어여쁘네.
시원하게 겨드랑이 아래에서 맑은 바람 일어나니
황홀하게 하늘에서 학 등에 탄 신선이 되었네.[23]
黛色周園畫棟邊　　不嫌蒼翠滴簾前
滕王高閣臨無地　　蘇子黃樓迥出天
點水沙鷗看可愛　　近簷明月正堪憐
泠泠腋下淸風發　　怳作璇霄鶴背仙

찬경루 주변에 검푸른 동산이 있어 푸른 산 풍경이 주렴 안으로 들어와도 개의치 않는다. 찬경루는 元嬰의 滕王閣, 蘇軾의 黃樓처럼 하늘 높이 솟아 있어서 주변의 풍광이 한 눈에 들어온다. 눈앞에 보이는 물새의 노는 모습, 처마 근처로 떠오른 밝은 달빛, 그 무엇 하나도 사랑스럽고 어여쁘지 않음이 없다. 이렇듯 아름다운 경관이 있기에 나도 모르게 양쪽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아 하늘로 올라가는, 羽化而登仙하는 듯한 황홀경에 빠지게 되는 느낌을 표현하였다. 미련은 소식의 <赤壁賦>를 취하여 시상을 전개한 것이다.

3. 秀孤亭, 先賢의 추모와 思鄕의 토로

수고정은 청송부사 高景虛가 1579년에 청송 객관 북쪽, 新民軒 서쪽에

21) 당나라 고조의 아들 元嬰이 洪州刺史로 부임하여 세운 누각으로, 후에 원영이 滕王에 봉해졌기 때문에 등왕각이라 부르게 되었다. 오늘날의 강서성 南昌市에 있다. 王勃의 <滕王閣序>에 "나는 듯한 누각에 단청이 흐르고, 아래로 땅이 없는 곳에 임하였다.[飛閣流丹, 下臨無地]"라는 구절이 있다.

22) 소식이 1077년에 彭城守로 부임하여 미리 水災 예방책을 취하였기 때문에 황하가 범람하였으나 이곳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 범람한 물이 빠진 뒤 성을 더 높이 쌓고 성 동쪽 문에 큰 누각을 짓고 황토를 칠하여 黃樓라 부르게 되었다. 후대에 黃樓로 산수에 登覽하여 시문을 지어 공덕을 칭송하는 전고로 쓰이게 되었다. 蘇轍의 <黃樓賦> 참조.

23) 申翼相, <次讚慶樓板上韻>(『醒齋遺稿』 책1, 문집총간 146책).

건립하였는데, 李滉이 수고정이라 扁額하였다고 한다.[24] 그리고 청송부사 李世晟이 1707년에 수고정을 중수하고 단청을 새로 하였다고 한다. 청송부읍지에는 신민헌을 포함하여 수고정・燕息堂・雙光軒 등이 있었는데, 이중에서 수고정과 신민헌 관련 작품이 가장 많다. 신민헌의 경우 부사 宋徵泰의 기문과 군수 安鍾悳의 상량문, 尹彙貞・洪義浩 등의 시편이 있고, 연식당의 경우에는 洪秀輔의 시, 쌍광헌의 경우에는 崔光泰와 成近默의 시가 있다.[25] 본 논문에서는 논의의 집중을 위하여 청송 관아의 건물 중에서 수고정을 읊은 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수고정에 제영한 작가로는 양극선・신익상・성근묵・홍한주 등이 있다. 이들은 수고정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선현 이황을 회고하거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였다.

다음은 1641년에 청송부사로 부임한 梁克選(1575~?)이 수고정에 올라 지은 작품으로 『여지도서』와 『청송부읍지』에 실려 있다.

> 先賢[26]께선 어찌하여 秀孤亭이라 편액하였던가?
> 겨울 추위 밀치고 독야청청함을 사랑해서라네.
> 채색한 먹빛은 지금까지 벽의 목판에 남아있고
> 굳고 푸른 소나무는 예전처럼 건물을 지키네.
> 높이는 若木[27]과 같아 천 자로 비스듬하고
> 수령은 靈椿[28]과 같아 만년이나 지났네.
> 시냇가의 울창한 소나무는 저물녘 취객을 품고 있고
> 바위 가의 느릿느릿 냇물은 그윽한 소리를 안고 가네.
> 견고한 金鼎[29]에서 납이 연단으로 변했고

24) 『여지도서』와 『청송부읍지』에는 청송부사 고경허가 1579년에 수고정을 건립하고 이황이 편액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고경허는 1579년 10월에 청송부사로 부임하여 1581년 2월에 이임하였다. 그런데 이황은 1570년에 임종하였기 때문에 이황이 수고정 편액을 써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지도서』와 『청송부읍지』의 기록은 잘못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황이 생존하였을 때 수고정이 건립되어 이황이 편액을 써주었고, 1579년에 고경허가 중수한 것이 아닌가 한다.

25) 권진호, 「讚慶樓」(제32회 누정순회강좌, 2009년 10월) 27~35면 참조.

26) 李滉을 말한다.

27) 고대 신화 속의 나무로 해가 뜨는 扶桑에 있는 나무를 말한다.

28) 고대 전설에서 장수하는 나무로 8천년을 봄으로 삼고 8천년을 가을로 삼는다고 한다.

29) 금정은 도사가 연단을 만드는 솥을 말한다.

www.kci.go.kr

걸쭉한 흰 음료가 맛난 술로 바뀌었네.
바람이 생황 소리 보내와 律呂에 부합되고
물결이 큰물을 흔들어 우레처럼 황홀하네.
蒼松 그린 韋偃[30]은 헛되이 고생했고
赤松子를 좇았던 張良 또한 아득하네.
어찌하면 이 노인처럼 吏隱을 겸하여[31]
높은 집에 누워서 아침저녁 조용히 관조할까?[32]

昔賢何額秀孤亭　　爲愛排冬獨也靑
彩墨至今留板壁　　銅柯依舊護軒屛
高參若木橫千尺　　壽等靈椿閱萬齡
鬱鬱澗邊含晩醉　　遲遲巖畔抱幽馨
膠漆金鼎酬鉛綠　　醪合瓊漿替醁醽
風送笙簧依律呂　　濤飜溟渤怳雷霆
畵蒼韋偃徒辛苦　　從赤張良亦杳冥
爭似此翁兼吏隱　　靜觀朝暮臥雲局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수고정 편액을 쓴 退溪 李滉을 추모하고 그의 높은 志趣를 본받고자 하는 생각을 표현하였다. 이황이 秀孤亭이라 편액을 한 것은 정확한 文證이 남아 있지 않지만 이 시를 통해 볼 때 수고정 주변에 있는 소나무가 겨울에도 독야청청하며 푸른빛을 잃지 않는 절조를 지닌 것에 착안하여 정자의 편액을 수고정이라 한 듯하다. 1구부터 6구까지는 이황이 수고정이라 편액한 이유는 겨울에도 독야청청한 소나무의 절조를 높이 샀기 때문인데, 아직도 선생의 친필 遺墨이 남아 있고 동시에 푸르고 굳센 소나무가 수많은 세월을 거치며 드높게 솟아 있음을 표현하였다. 7구부터 12구까지는 시냇가의 울창한 솔숲에 앉아 느릿느릿 흘러가는 남천의 물소리를 듣고, 솔바람이 들려주는 자연의 멋진 화음과 우당탕탕 흘러가는 물소리의 활발함을 표현하였다. 13구부터 16구까지는 이황처럼 물욕을 없

30) 위언은 당나라 京兆 사람으로 촉 땅에 살며 산수와 인물 등의 千變萬態를 그렸는데, 특히 松竹・高僧・鞍馬 등을 잘 그렸다.
31) 吏隱은 利祿 때문에 마음을 수고롭게 하지 않고, 비록 관직에 있을지라도 隱者처럼 지내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이황을 가리킨다.
32) 『輿地圖書』 下 390면(국사편찬위원회, 1973년).

www.kci.go.kr

애고 吏隱으로 살고자 하는 소망을 피력하였다. 蒼松을 그린 韋偃이 헛되이 고생했다고 한 것은 이곳에 자생하는 소나무를 보는 것이 위언의 소나무 그림을 보는 것보다 낫다는 의미이고, 赤松子를 좇았던 張良이 아득하다고 한 것은 세속을 벗어나 신선이 되기를 구하기보다는 이황처럼 물욕을 없애고 吏隱의 삶을 사는 것이 참다운 삶임을 표현한 것이다.

다음은 洪翰周(1798~1868)가 1826년 가을에 청송에 들러 지은 <秀孤亭夜坐有懷二首> 중 제1수이다. 홍한주는 1826년과 1827년에 영남의 여러 지역을 유람하였는데, 이들 시편은 「嶺表集」에 실려 있다. 「嶺表集」에는 홍한주가 1826년에 지은 <遊周房山>, <周王菴>, <夜宿大典寺>, <玉山亭>, <讚慶樓>, <秀孤亭夜坐有懷二首>, 1827년에 지은 <龍纏巖晩步呼韻>, <遊周房山歌十首>, <讚慶樓月夜次諸君韻> 등의 시편도 실려 있다.

난간에 기대어 길이 退陶翁을 생각하니
남겨진 墨香을 어느 해에 여기에 보냈던가?
문밖에는 여러 산이 다가와 읍을 하고
담장 위에 돋는 달이 몽롱하게 떠오르네.
구름 낀 산은 곳곳마다 가을빛이고
기러기가 돌아갈 때 또 밤바람이 부네.
천 리의 순챗국을 스스로 좋아하거니
張翰[33]처럼 다시금 강동을 부르며 돌아가리라.[34]
凭欄長憶退陶翁　　遺墨何年寄此中
戶外羣峰來拱揖　　墻頭初月上朦朧
雲山是處皆秋色　　鴻鴈歸時又夜風
千里蓴羹須自愛　　季鷹還復號江東

수고정 난간에 기대어 오래도록 퇴계 선생을 회고하며 이황이 언제 이곳에 수고정 편액을 보냈는지를 생각한다. 문밖에는 주변의 산들이 읍을 하듯이 서있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담장 위로 달이 돋는다. 구름 낀 산은 곳

33) 晋나라 張翰은 洛陽에 있을 때 가을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고향 江東 땅의 순채국과 농어회를 생각하며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였다. 후대에 농어회와 순채국[鱸蓴]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전고로 사용되었다.
34) 洪翰周, <秀孤亭夜坐有懷二首>(『海翁詩藁』 권2, 문집총간 306책).

곳마다 단풍이 들어 아름답지만 날씨가 변하여 밤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 나뭇잎들이 우수수 떨어진다. 잎 지는 가을밤, 객지에 있으면 저절로 고향 생각이 떠오른다. 그래서 張翰이 가을바람에 고향땅의 순챗국과 농어회를 떠올리며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간 고사를 생각하며 자신도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심정을 토로하였다. 제2수에서도 을씨년스런 가을의 풍경을 묘사한 뒤 가을밤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심정을 표현하였다.[35]

다음은 申翼相이 1654년 무렵 청송에 머물 때 지은 <題秀孤亭>이다.

옛 제도가 아직도 남은 곳은
우뚝한 이 수고정 뿐이네.
창으로 들어오는 구름 기운이 하얗고
탑상에 들이치는 서리꽃이 싸늘하네.
풍경이 길손을 슬프게 하여
정자에 올라 고향을 그리네.
석양에 다 보려 하는데
돌아가는 새가 찬 못에 모여드네.[36]

古制猶存處　巋然獨此堂
穿窓雲氣白　拂榻露華涼
風物悲遊客　登臨憶故鄕
夕陽看欲盡　歸鳥集寒塘

옛날의 건물 제도가 아직도 온전히 남아 있는 곳은 수고정 뿐인데, 이곳에 오르자 창문으로 하얀 구름이 들어오고 탑상에는 싸늘한 서리꽃이 들이친다. 가을이 되어 날씨가 쌀쌀하고 초목이 시들어 떨어지자 불현듯 서글픈 감정이 들어 정자에 올라 고향을 바라본다. 저물녘에 고향땅을 보려 하지만 고향은 보이지 않고, 눈앞에 찬 못가의 나무에 있는 보금자리로 돌아가는 새가 모여들고 있다. 새도 날이 저물면 보금자리로 돌아가지만 자신은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늦가을이 되어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35) 제2수는 "故園回首杳難窮, 無那秋懷獨夜中. 山女孤砧村遠近, 野人歸火水西東. 空階葉落常聞雨, 老木天寒自起風. 官酒醒來林月上, 曉窓剛對一燈紅."이다.
36) 申翼相, <題秀孤亭>(『醒齋遺稿』 책1, 문집총간 146책).

서글픈 심사를 표현하였다.

다음은 成近默(1784~1852)이 청송부사로 있던 1831년 9월 9일 수고정에 올라 지은 <重陽節登秀孤亭>이다. 그는 <雙光軒與子建共吟>을 짓기도 하였다.

중양절 가랑비에 홀로 정자에 오르니
국화가 피어서 또한 절로 향기롭네.
거울 속엔 서리꽃이 흰 머리에 침투하고
음영 중에 산 풍경이 푸른 눈을 씻어주네.
계곡물이 바위 때려 짤랑짤랑 옥 소리 내고
단풍잎은 솔 곁에서 비단 병풍 이루었네.
술 있으니 좋은 손과 취하지 않겠는가마는
서글퍼서 빈 뜰을 걸을 수가 없구나.[37]

重陽小雨獨登亭　　細菊開花也自馨
鏡裡霜華侵鬢白　　吟邊山色拭眸青
澗流激石鏗鏘玉　　楓葉隣松錦繡屛
有酒奈無嘉客醉　　不堪惆悵步空庭

가랑비 내리는 중양절에 홀로 정자에 오르니 국화가 향기로운 꽃을 피워 매우 사랑스럽다. 머리가 세는 것이 서글프기는 하지만 시를 읊조리며 앞산을 보니 눈이 시원해져서 그나마 위안이 된다. 수고정 앞을 흐르는 시냇물이 바위에 부딪혀 맑은 소리를 내고 푸른 소나무 곁에 곱게 물든 단풍잎이 아름답기 그지없다. 아름다운 가을 풍경에 흥이 절로 날만도 하지만 미련에 가서 시상이 급격히 반전을 이룬다. 좋은 손과 만나 술에 취해보기도 하지만 서글픈 심정에 차마 빈 뜰을 걸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중양절에 고향을 떠나 객지에 머무느라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사향의 감정을 문면에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 이면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서글픔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빈 뜰을 거닐 수 없는 것이다.

37) 成近默, <重陽節登秀孤亭>(『果齋集』 권1, 문집총간 299책).

www.kci.go.kr

4. 玉流亭·東溪亭·壓脚臺·望美亭, 閑趣의 향유와 戀君의 표현

청송에는 앞서 살핀 찬경루와 수고정 이외에도 유명한 누정이 많다. 1990년에 간행한『靑松郡誌』제8편 제4장 樓亭 조항에 소개된 누정만 하여도 100여 곳이 넘는데,[38] 본 절에서는 여러 누정 중에서 玉流亭·東溪亭·壓脚臺·望美亭의 시편을 살펴보고자 한다. 옥류정은 眞寶 神漢川 가에 있는 정자로 본래는 객관 북쪽의 養眞堂이 있던 곳인데, 이황이 鄭惟一에게 보낸 시로 인하여 옥류정으로 편액을 바꾸었다고 한다.[39] 동계정은 趙亨道가 1618년에 지은 정자로 안덕면 덕성리에 있으며, 압각대는 진보 객관 북쪽에 있는 누대로 일찍이 서거정이 시를 짓기도 하였다. 望美亭은 청송읍 월막리 남천[龍纏川] 바위 위에 있는 정자로 1899년에 청송부사 張承遠이 건립하였다.

먼저 옥류정을 읊은 시편으로는 이황의 <寄眞寶鄭子中城主二絶>, 沈錥의 <玉流亭次退溪先生韵示主人>과 <玉流亭又步壁上韻>, 許薰의 <登玉流亭故墟感吟> 등이 있다. 이 중에서 李滉(1501~1570)이 1564년에 진보 수령으로 있던 鄭惟一에게 보낸 <寄眞寶鄭子中城主二絶> 중 제2수를 살펴본다. 이황은 이해에 陶山에 머물며 淸凉山·風月潭·紫霞峰 등지를 유람하였다.

> 내 고향은 桃源에 들어가는 듯한데
> 붉은 절벽 흰 물결에 琴堂[40]이 비치네.
> 늙은 백성 다행히도 遊仙枕[41]이 있어서

38) 청송군 편,『靑松郡誌』, 군지편찬위원회, 1990, 580면~591면.

39) 李滉의『退溪集』文集攷證 권2에 "玉流 아래에 '동헌 북쪽에 양진당이 있는데, 후에 이 시로 말미암아 옥류정이라 편액을 바꾸었다.[東軒北, 舊有養眞堂, 後因此詩, 改扁玉流亭.]"라는 고증이 있다.

40) 琴堂은 琴閣이라고도 하는데, 수령이 정무를 보는 東軒을 가리킨다.『呂氏春秋 察賢』에 "宓子賤이 單父를 다스릴 때 琴만 타고 있고 몸이 마루를 내려가지 않았으나 선보가 다스려졌다."라는 일화에서 나온 단어이다.

41) 유선침(遊仙枕)은 전설에 나오는 신선의 베개이다.『開元天寶遺事』<유선침조(遊仙枕條)>에 "귀자국(龜玆國)에서 베개 하나를 진상하였는데, 그 색깔은 마노와 같았으나 모양이 매우 소박하였다. 그런데 그 베개를 베고 자면 십주(十洲)·삼도(三島)·사해(四海)·오호(五湖)

맑은 꿈에 때때로 낚싯배에 오르네.[42]
如入桃源是我鄕　　玉流丹壁映琴堂
老民幸有遊仙枕　　淸夢時同上釣航

무릉도원처럼 풍경이 아름다운 진보가 내 고향인데, 그곳에는 동헌과 옥류정 아래로 신한천의 흰 물결과 붉은 절벽이 펼쳐진 곳이다. 언제나 가고 싶고 늘 그리운 곳이 고향이지만 발걸음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몸이 늙어 비록 직접 가기는 어려울지라도 꿈속에 낚싯배를 타고 여울을 거슬러 올라가 진보의 멋진 경관을 본다고 하였다. 꿈속에서라도 가서 보고 싶은 고향땅에 대한 진한 애정이 잘 표현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1수에서는 시내와 산에 가로막혀 고향땅에 가지 못하지만 정유일이 맑은 정치를 베풀고 있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심정을 표현하였다.[43]

다음은 趙亨道(1567~1637)가 朴狂儂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東溪亭次朴子龍狂儂韻>이다. 조형도는 1618년 東溪에 동계정을 짓고 思親戀君의 편액을 달았는데, 1636년 무렵에 <東溪亭> 시를 짓기도 하였다.[44]

와서 누우니 강산이 조용한데
몸이 편한 곳이 우리 집이라네.
생각 있어 끝내 여기 들렀지만
다시금 어찌할지 모르겠네.
창밖에서 물소리가 들려오고
상머리에 저녁노을 방울지네.
늙은이가 시 짓기 그만둔 지 오래되어
풍경 또한 읊조리기 어렵구나.[45]
來臥江山靜　　安身卽我家
只思終過此　　不識更之何
牕外聽流水　　床頭滴晩霞

를 모두 볼 수 있었으므로 황제가 유선침으로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였다.
42) 李滉, <寄眞寶鄭子中城主二絶>(『退溪集』 권3, 문집총간 29책).
43) 제1수는 "避地吾先遂不還, 孱孫咫尺阻溪山. 空聞邑政淸如水, 讀得初心松桂間."이다.
44) 詩題 아래에 "歲戊午搆亭於東溪, 扁以思親戀君"의 주가 있고, 시는 "一練淸溪近郭東, 數椽來抱曲流中. 爲從初出前峯旭, 試始芒鞋到日窮."이다.
45) 趙亨道, <東溪亭次朴子龍狂儂韻>(『東溪集』 권2, 문집총간 속집 15책).

老夫詩久廢　　風景亦難哦

고향으로 돌아와 조용한 강산에서 지내노라니 마음과 몸이 편안하다. 광해군의 昏政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思親과 戀君, 즉 출사와 은거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선택 중에서 어느 하나를 택하기 어려워 고민이 된다. 창밖에서는 냇물 소리가 들려오고 책상머리에는 저녁노을이 비치는 등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사는 삶이 만족스럽지만 詩作을 그만둔 지 오래되어 눈앞의 풍경을 시로 표현하기 어려운 심정을 토로하였다.

다음은 黃俊良(1517~1563)이 1551년에 진보에 들러 鴨脚臺를 읊은 <次眞安鴨脚臺 辛亥>이다. 황준량은 1551년 2월 경상도 監軍御史에 임명되어 청송·영해·영덕·청하·동래 등 경상도 열읍을 순찰하였다.

하늘을 찌르는 고목이 누대에 드리워져
만 리의 신령한 바람이 얼굴에 불어오네.
주렴을 다 걷으니 바다제비가 날고
옥피리 소리 잦아들자 강가 매화 떨어지네.
꿈속에 청량한 雲水鄕에 투숙하니
안개와 노을 낀 산천이 시편으로 들어오네.
오로지 마음속의 불평[46]을 없애려
동해를 기울여 천 잔 술을 마시려네.[47]
參天老樹蔭層臺　　萬里靈飆拂面來
捲盡朱簾飛海燕　　吹殘玉笛落江梅
夢投雲水淸涼地　　吟入煙霞紫翠堆
唯有胸襟空磊磈　　要傾東海倒千杯

높이 솟은 老巨樹가 누대에 그늘을 드리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주렴 너머 물가에는 바다제비가 날고 매화가 바람결에 떨어진다. 청량하고 아름다운 이곳에 투숙하니 안개와 노을이 낀 산천 때문에 詩興이 일어 저절로 시가 이루어지고, 타향을 떠도는 신세에서 오는 울적한 기분을 술로

46) 磊磈는 돌이 중첩한 모양으로 마음속의 불평한 기운을 비유한다.
47) 黃俊良, <次眞安鴨脚臺辛亥>(『錦溪集』 권4, 문집총간 37책).

풀고자 하는 심사를 표현하였다.

다음은 許薰(1836~1907)이 1899년 望美亭에 들러 張承遠의 부탁을 받고 지은 <張公儒承遠宰靑松郡 新構望美亭 作詩求和 賦寄二律> 중 제1수이다.

텅 빈 못에 푸른 萬山이 비치고
洞府가 깊디깊어 맑은 기운 모였네.
오경에 머리 돌림은 하늘의 북극성이고
한 구역에 빛나는 건 군 동쪽의 정자라네.
바람결에 퉁소 소리 들려와 숨은 용이 춤을 추고
이슬이 솔 끝에 방울 져서 자던 학이 잠을 깨네.
태수는 원래 행락을 취하지 않지만
민요는 정말로 여기에서 듣기에 좋구나.[48]
空潭來映萬峯靑　　洞府深深萃淑靈
五夜回頭天北極　　一區生色郡東亭
風傳簫響潛蛟舞　　露滴松顚睡鶴醒
太守元非行樂取　　民謠政好此間聽

잔잔한 못인지라 주변의 모든 靑山이 비치고 깊숙한 동부인지라 맑은 기운이 응축된 곳이 망미정이다. 3구는 장승원이 새벽에 임금이 계신 北闕을 바라보며 연군의 정을 품고 있음을, 4구는 고을에서 빼어난 곳이 바로 군 동쪽에 있는 이 정자임을 말하였다. 경련에서는 바람결에 들려오는 퉁소 소리와 소나무 가지 끝에 맺힌 이슬에 용이 춤을 추고 학이 잠을 깬다고 하여 이곳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미련에서는 태수가 행락을 즐기지는 않지만 백성들이 선정을 칭송하는 노래는 정말로 듣기 좋다고 하여 장승원이 선정을 베푸는 것을 찬미하였다. 결국 이 시는 장승원의 忠君과 善政을 칭송한 시라 할 수 있다.

48) 許薰, <張公儒承遠宰靑松郡 新構望美亭 作詩求和 賦寄二律>(『舫山集』 권5, 문집총간 327책).

www.kci.go.kr

5. 결론

靑松은 명산대천과 이름난 누정이 산재하는 등 자연과 인문 환경이 잘 갖추어진 고을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문인들이 이곳을 찾아 수많은 시문을 지어 산천의 수려함을 노래하는 한편 청송의 인물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文鄕이다. 본 논문은 100곳이 넘는 청송의 누정 중에서 빼어난 시편이 다수 남아 있는 讚慶樓·秀孤亭·玉流亭·東溪亭·壓脚臺·望美亭 등을 대상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각 장에서 누정의 연혁 등을 간략히 살펴본 뒤 해당 누정 명편 한시의 主旨와 시상 전개 양상 등을 분석하였는데,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청송부사 河澹이 1428년에 昭憲王后의 聖德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한 찬경루 제영 한시를 살펴보았다. 찬경루 한시는 소헌왕후의 성덕을 칭송하거나 仙境의 흥취를 피력한 작품이 대부분인데, 김종직·조형도·김홍욱·이의현 등의 시편은 소헌왕후의 성덕 칭송, 서거정·이해·신익상 등의 작품은 선경에 대한 흥취를 주로 표현하였다. 3장에서는 청송 객관 북쪽에 있던 수고정 한시를 고찰하였는데, 수고정 편액은 이황이 쓴 것이다. 그래서 양극선·홍한주 등은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는 동시에 이황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주로 표현하였고, 신익상·성근묵 등은 물경의 수려함과 함께 타향에 머무는 처지에서 오는 思鄕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4장에서는 옥류정·동계정·압각대·망미정을 읊은 이황·조형도·황준량·허훈의 한시를 검토하였다. 이들은 시 속에서 청송의 아름다운 경관을 적실하게 표현하는 한편 각각 고향 진보에 대한 그리움, 思親과 戀君의 심정, 넘치는 詩興, 忠君과 善政의 칭송 등을 주지로 시상을 전개하였다.

본 논문에서 고찰한, 청송의 대표적인 누정을 읊은 15수 남짓의 시편은 청송의 아름다운 경관은 물론이고 청송의 인물과 문화, 시인의 심회를 적실하게 표현하여 청송의 성가를 드높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다룬 해당 누정의 한시는 훨씬 더 많고, 게다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작품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아가 이들 누정 이외에도 청송에 있는 수많은 누정에 제영한 한시는 미처 검토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이들 누정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www.kci.go.kr

참고문헌

1. 기본자료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朝鮮王朝實錄』.
『靑松府邑誌』.
『詩經』.

金宗直,『佔畢齋集』, 문집총간 12책.
金弘旭,『鶴洲集』, 문집총간 102책.
成近默,『果齋集』, 문집총간 299책.
申翼相,『醒齋遺稿』, 문집총간 146책.
李宜顯,『陶谷集』, 문집총간 180책.
李 瀣,『溫溪逸稿』, 문집총간 27책.
李 滉,『退溪集』, 문집총간 29책.
趙亨道,『東溪集』, 문집총간 續集 15책.
許 薰,『舫山集』, 문집총간 327책.
洪翰周,『海翁詩藁』, 문집총간 306책.
黃俊良,『錦溪集』, 문집총간 37책.

2. 논저
청송군 편,『靑松郡誌』, 군지편찬위원회, 1990.
권진호,「讚慶樓」(제32회 누정순회강좌), 안동청년유도회・한자문화콘텐츠학회, 2009.

www.kci.go.kr

A Study on the Sino-Korean Poetry about the Pavilions in Cheongsong – Focusing on Changyeonglu, Sugojeong and Okryujeong, etc.

Kim, Nam-ki

In Cheongsong, the scenery is beautiful and famous pavilions lie scattered, so writers have been visiting it and composing a lot of poetry and prose from old times. This thesis develops its discussion targeting Changyeonglu, Sugojeong and Okryujeong, Donggyejeong, Apgakdae, Mangmijeong and etc.

Among the pavilions in Cheongsong where distinguished Sino-Korean poems remain in great numbers. Most Sino-Korean poems in Changyeonglu praise Queen Soheon"s royal virtues or express the joy of the fairyland. The poems written by King Jong-jik, Jo Hyeong-do, Kim Hong-wuk, Lee Eui-hyeon and others complimented Queen Soheon"s saintly virtues, and the works by Seo Geojeong, Lee Hae, Shin Ik-sang and others mostly expressed the excitement at the enchanted land.

Among the poems in Sugojeong, those written by Yang Geuk-seong and Hong Han-ju, etc., described the surrounding beautiful scenery and verbalized the heart to cherish the memory of deceased Lee Hwang, and those by Shin Ik-sang, Seong Geun-muk and etc. spoke out their longing for hometown. The poems of Lee Hwang, Jo Hyeong-do, Hwang Jun-ryang, and Heo Hun depicting Okryujeong, Donggyejeong, Apgakdae and Mangmijeong described the great landscape of Cheongsong with the subject of the heart missing hometown, Jinbo, and their parents and the king, and the exploding desire to create poems, and so on.

The Sino-Korean poetry of the pavilions in Cheongsong investigated in this thesis can be concluded to have expressed properly not only the picturesque scenery of Cheongsong but also its main figures and culture, and the poets" emotions and therefore have enhanced the reputation of Cheongsong.

www.kci.go.kr

keywords: Cheongsong, pavilion, Sino-Korean poetry, Changyeonglu, Sugojeong, Okryujeong, Donggyejeong, Apgakdae, Mangmijeong

접수일자: 2015. 3. 31.
심사기간: 2015. 3. 31.~2015. 5. 10.
게재결정: 2015. 5. 10.

www.kci.go.kr

www.kci.go.kr